

건축

전통과 혁신의 조화로운 공존

일본 건축의 발전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의 건축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중국의 건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 건물들의 외부 목재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반면, 일본의 건물에는 전통적으로 그림이 없다. 또한, 중국 건축들은 의자를 사용하는 생활 양식을 기초로 하지만 일본인들은 관습적으로 바닥에 앉았다. 이 습관은 메이지 시대(1868-1912)에 들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일본의 건축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부분의 지역들은 여름이 길고 더우며 습하다. 이러한 기후 조건은 집을 짓는 방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인 가옥은 어느 정도 지면과 떨어져 있어서 집 아래 쪽으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건축 자재는 주로 나무를 사용하였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지진이 일어나도 유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스카 시대(593-710)에는 불교가 중국으로부터 일본에 전파되어 대륙적인 건축 양식으로 절이 지어졌다. 이 시대 이후, 불교 사원은 일본의 건축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607년에 지어져 670년 화재 이후 다시 건축된 호류지 사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호류지 지역의 불상 중에는 1993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록된 것도 있다.

나라 시대(710-784)에는 수도인 헤이조 교의 도로를 격자형으로 배열하여 중국의 수도와 비슷한 방식을 도입하였다. 나라 시대의 많은 절과 궁궐은 당나라 양식으로 건설되었다. 헤이안 시대(794-1185)에는 중국적인 요소들이



야쿠시지(藥師寺) 동쪽 탑 (나라현)
이 탑은 730년에 세워졌다.

온전히 흡수되어 완전한 국가적인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지금의 교토인 헤이안 교는 귀족들의 가옥이 도시 중심에 세워지고 주변의 건물들이 복도로 연결되어 있었다.

봉건 영주들이 일본 사회를 지배하던 16세기에는 많은 성들이 건축되었다. 이러한 성들은 군사 방어용으로 건설되었지만, 지방 영주의 저택으로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도 몇몇 남아있는 건물들은 '천수각'(성곽의 탑)이 인상적이다. 성 내의 거주 공간과 절의 숙소로 사용한 건물에는

이즈모 다이샤(出雲大社, 신사)
 시마네현에 있는 '이즈모 다이샤'의 본전으로, 신사 건축양식이다. 현존하는 신전은 1744년에 지어진 것이다. 신전 구조는 고분 시대(300년경-710년)의 거주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제공 : 이즈모 다이샤)



주로 반투명하거나 어두운 색의 창호지('쇼지')를 바른 여닫이 문('후스마')과 짚으로 엮어 만든 다타미를 설치한 '쇼인-즈쿠리'라고 알려진 일본의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 이 양식은 지금도 일본 전통 가옥을 건축하는데에 영향을 미친다. 이 양식의 대표적인 예가 17세기에 지은 교토의 니조성의 니노마루궁이다.

17세기에는 '쇼인-즈쿠리' 양식과 다도가 행해진 '스키야'의 특징을 결합한 건축 양식인 '스키야-즈쿠리' 양식이 탄생하였다. 우아한 감수성과 날씬한 목조 소재에 장식을 하지 않은 간결함이 특징이다. 이 양식의 가장 좋은 예는 건물과 풍경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가쓰라 별궁(교토)이다.

불교 건축

6세기 경 불교가 일본으로 전파되었을 때 부처를 숭배하기 위한 장소들이 건축되었고 이 건축 양식들은 중국과 한국에서 건너온 것이었다. 각 절에는 승려와 비구니들이 거처하는 장소와 신도들이 모이는 시설들을 포함하여 여러 동의 건물들이 세워졌다.

7세기의 사원은 7개의 기본 건축물로 구성되었다. 탑과 본당, 법당, 종탑, 경전 보관소, 합숙소 그리고 식당이다. 절의 건물 밖으로 흙벽을 둘러 쌓고 각 방향으로 문을 내었다. 문은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본당에는 가장 중요한 불상이 모셔졌다. 초기의 사원 건축 중, 가장 큰 건물인 법당은 승려들의 공부와 교육 및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 사용되었다.

절에는 2개의 탑이 있는데 하나는 매일 종교적인 행사의 시간을 알려 주는 종이 달린 탑이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문서들을 보관하는 탑(경전 보관소)이다. 경 내의 뒤 쪽과 옆으로는 식당과 합숙소가 있었다.

사원 건축들은 일반적으로 종파에 따라

여러가지 기하학적인 형태로 배치되었다. 선종 불교는 주요 건물들을 일렬로 배치하고 지붕이 덮인 회랑으로 연결하였으며 정토종 절에는 정원과 연못이 있었다.

신도 건축

신도를 믿는 사람은 '가미'(신)는 훨훨 불타는 활화산, 아름다운 산과, 나무, 돌, 폭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의 만물과 현상에 존재한다고 믿었다. 신도의 신사는 신을 모신 곳으로 사람들이 '가미'를 숭배하는 곳이다.

신사의 건물은 전형적이기 보다는 주위 환경에 따라 배치된다. 독특한 형태의 '도리이'(문)에서부터 중앙의 신사 건물까지 길이 나 있고 길을 따라 석등이 배치되어 있다. 신사 내에 들어서면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신도들이 손과 입을 씻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보통 사자처럼 생긴 '고마 이누' 한 쌍이 신사의 문이나 중앙 본당 앞을 지키고 있는데 신도의 수호자 역할을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가미'를 모시기 위한 임시 중앙 강당이 건설되었다. 이 건물 양식은 기원전 3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오사카의 스미요시 신사에 있는 중앙 신사 본당은 이러한 임시 건물 양식과 흡사하며 고대 종교 건물들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중앙 본당의 또 다른 주요 양식으로는, 선사 시대의 곡물 창고와 보물 창고에서 유래한 단순한 형태가 있다. 이 양식의 좋은 예가 미에현에 있는 이세 신궁이다. 안 쪽 신사는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에게 바쳐진 것이고, 바깥 쪽 신사는 곡식의 여신인 도요우케노 오미카미에게 바쳐진 것이다.

주거용 건축 요소들은 시마네현의 이즈모 신사의 주요 건물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건물 양식은 기둥이 땅 속 깊숙히 박혀 있고 마루는 공중에 떠 있다. 불교가 도래하면서 신도의 숭배적 성격도 바뀌게 되고 신도의 건축

히메지 성
 효고현 히메지시에 위치한다. 하늘로 오를 듯한 흰 벽이 독특하여, 백로성이라고도 불린다. (사진제공 : Getty Images)



양식에 불교 건축물의 특정한 요소를 빌어오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많은 신사들은 중국식으로 기둥을 빨강색 칠하고 벽은 흰색으로 칠하였다.

주기적으로 신사는 장소를 정확하기 위해 새로 짓고 물품들을 새로이 바꾸는 전통이 있다. 이제 신궁에서는 20년 마다 아직도 이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과 화재, 그 외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가장 오래된 신사 건물은 11세기, 12세기 경에 지어진 건물이다.

정원들을 얇은 자세에서 잘 보이도록 배치하였다.

근대화로 인하여 가옥 양식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전통적인 일본 건축 양식은 사라지지 않았다. 서구화된 가옥에도 ‘다타미’가 깔린 방을 볼 수 있으며, 일본인들은 신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관습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

디자인 콘셉트

과거 일본의 가옥 내부는 개인적인 장소를 나누는 칸막이가 없는 사실상 개방형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특정한 장소와 식사, 취침, 옷을 갈아 입을 곳 등, 장소의 기능을 고려하게 되면서 ‘묘부’(병풍)를 사용하게 되었다. 지금도 많은 가옥에서 사용하는 ‘쇼지’(창호지)와 ‘후스마’(미닫이 문)도 고안되었다. 방음 효과는 없지만 어느 정도 사생활을 보장해 주며, 전체 공간을 사용할 때에는 집을 지탱하는 기둥을 제외하고는 옮길 수도 있었다. ‘쇼지’는 빛이 비치게 하였다.

일본인의 가옥 내부와 외부 보는 방법은 전통적인 설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다. 일본인들은 내부와 외부로 다른 환경으로 보지 않고 연속되는 요소로 본다. 이 개념은 집 안팎을 연결하는 일본의 ‘엔가와’(뒷마루)에 나타나 있다. 한 쪽은 건물에 고정되어 있으며, 비가 오면 젖게 되는 ‘누레 엔’은 ‘엔가와’의 변형이다.

미적 시각에서 보면 전통 가옥은 입식 생활이 아닌 좌식 생활에 맞게 설계되었다. 문과 창문 그리고 마루는 집 안의 내부와 외부의

현대 건축

1867년 메이지 시대가 열리면서 현대적 건축 기술이 일본에 소개되었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일본의 목조 건축 양식과 서양식의 건물과 기술을 접목하여 지어졌다. 나가노현 마쓰모토시에 있는 가이치 초등학교(1876)는 전국 학교에 적용된 혼성 양식의 전형적인 건물이다.

1880년대에는 급속한 서구화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여 아시아의 모델이 평가받기 시작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1867-1959)와 독일의 브루노 타우트(1880-1938)와 같은 건축가들이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전통 건축 양식은 재평가를 받았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듬해에도 전통적인 건축과 현대 건축을 조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전후 건축가인 단게 겐조(1913-2005)는 전통적인 일본 건축을 진보한 과학 기술과 융합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 1964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요요기 국립 경기장을 비롯한 여러 인상적인 건물들을 설계하였다. 서양건축의 영향을 받아 1914년 건축된 도쿄역역사는 오랜 세월 개축을 거듭하며 사용돼 왔지만 2012년 건축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도쿄역의 마루노우치역사역사
 건설당시의 모습으로 재현된



가이치 학교

나가노현 마쓰모토시에 있는 이 교사는 1876년에 건축되었다. 일본의 근대 건축 초기 양식의 일례로, 일본식과 서양식을 절충한 건축물로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사진제공 : Getty Images)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을 짓는 기술 발전은 항상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1968년, 최신 지진 저항 기술로 지어진 일본의 첫 번째 고층 빌딩인 가스미가세키 빌딩이 완공되었다. 1970년대부터 도쿄 니시신주쿠에 자리한 고층 빌딩 군과 요코하마의 랜드마크 타워(296m, 1993)를 포함한 수많은 고층 빌딩이 건설되었다.

건축가 단계 아래에서 일을 했던 젊은 이소자키 아라타(1931-)는 상업화에서 완전히 벗어나 건축적인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작업을 지휘하였다. 그의 작업과 논문은 젊은 건축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부터는 이전의 전문 건축 기술을 강조하던 스타일에서 벗어나 예술적 접근을 강조하는 건축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국내의 건축 사무소는 1980년대의 고도 성장 시대 동안 계속 호황을 누렸으며 몇몇 유명한 외국 건축가가 작업을 위해 일본으로 초대되기도 하였다. 그 후,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의 '거품 경제'의 붕괴로 인하여 건축 산업이 침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건축가들은 일본에서 높은 지위를 유지하였고 수많은 외국 건축가들이 사업 시장을 찾아서 일본으로 진출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방에까지 확산되었다. 1990년대에 세워진 유명한 건축물 중에는 라파엘 비놀리의 도쿄 국제포럼(1997) 건물과 단게 겐조의 도쿄 메트로폴리탄 정부청사(1991)가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해외로 진출하는 일본 건축가들이 늘어났다. 이들 중에는 로스앤젤레스의 현대 미술관(1986)을 설계한 이소자키와 싱가포르의 OUB 센터(1986)를 설계한 단게, 파리의 태평양 타워(1992)를 설계한 구로카와 기쇼(1934-2007) 및 파리 유네스코 단지의 명상의 공간(1995)을 설계한 안도 다다오(1941-)가 있다.

안도는 특히 해외에서 명성이 높다. 그는 하얏트 재단에서 수여하는 1995년 프리처 건축상과 영국 왕실 건축가 협회에서 수여하는 1997년 건축 부문의 로열 골드 메달을 받는 등, 국제적인 상을 여러 번 수상했다. 2006년에는 이토 도시오(1941-)도 영국 왕실 건축가 협회로부터 골드 메달을 수상하였다. 또, 2010년에는 세지마 가즈요와 니시자와 류에가 프리츠커상을 수상했다. 오가사와라 자료관(나가노현 이다시, 1999년)과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이시카와현, 2004년)을 비롯하여 수상자 2명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SANAA' 건축 프로젝트가 평가를 받았다.



국립 신 미술관

2007년 도쿄 롯폰기에 개관한 혁신적인 디자인의 국립 신 미술관 모습이다. 건축가 구로카와 기쇼가 설계하였으며, 일본 최대 규모의 전시장을 자랑한다. (사진제공 : Getty Images)



도쿄 스카이트리
세계 최고 높이의 전
파탑

2012년에는 세계 최고 높이의 자립식 전파탑 도쿄 스카이트리(634m)가 문을 열었다. 전통적인 일본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소리(흰모양)'와 '무쿠리(볼록한모양)'를 의식해 정상부에서 아래부분을 향해 변화하는 부드러운 곡선이 특징으로, 보는 각도와 장소에 따라 다채로운 표정을 지닌 새로운 랜드마크이다.

2013년에 가부키좌 극장과 2020 도쿄 올림픽을 위한 새 국립 경기장을 설계한 건축가 쿠마 켄고는 나무, 종이, 흙 등 환경 친화적인 천연 재료의 사용으로 주목받았다. 2016년에 그는 로커스 재단에서 전 세계 "지속 가능한 건축" 상을 획득했다.



가부키좌
도쿄 긴자의 가부키좌 극장